

# 일본경제리뷰 No.19\_10

## < Special Issue >

### 미일 무역교섭 타결

#### Contents

<Special Issue> .....	1
I. 한일경제동향 .....	6
II. 이달의 일본경제	
1. 경기·무역 동향 ....	9
2. 경제정책 .....	13
3. 기업전략 .....	17
4. 산업기술 .....	21
III. KJCF&KJE News .....	24
IV. 이달의 추천자료 .....	25
V. 한일경제지표 .....	26



## < Special Issue >

### 미일 무역교섭 타결

- 미일 무역교섭이 9월 25일 각료급협의를 개시한지 6개월의 단기간에 타결, 일본 국회 승인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발효될 전망이다
- 일본은 최대 현안이었던 對美 자동차 수출에 대한 고율관세와 수량 규제를 피할 수 있게 됨
- 중국과의 마찰이 심화되고 있는 미국은 2020년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, 쇠고기와 돼지 고기에 대한 관세 삭감을 얻어냄
- 아베 총리는 상호 Win-win의 결론을 맺었다고 평가하고 있으나 뒤로 미뤄진 현안도 적지 않음

#### □ 2국간 교섭의 경위와 일본 측의 전략

- 2018년 4월 아베 총리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통상대화의 틀을 제시했음
- 일본 측은 미국의 TPP 복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노렸으나 우여곡절 끝에 2국간 교섭 쪽으로 방향을 튼
- 2018년 9월 무역협정교섭에 합의, 2019년 4월에 각료급 협의가 시작됨
- 일본이 최소한의 목표로 한 것은 자동차 분야의 고율관세와 수량규제 회피, 농산품의 시장개방을 TPP 수준으로 억제하는 것이었음
- 미국에 수출하는 일본차에 25%의 관세가 부과되면 일본의 자동차산업은 큰 타격을 입게 됨
- 도요타자동차 등 자동차 관련 대기업들에게 최대 5,000억 엔의 비용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산결과도 있음
- 일본정부의 교섭개시 이후, 주요 일본 자동차업체들은 물밑에서 조정 작업을 진행
- 일본정부는 업계 측의 추가관세와 일본차의 수출수량규제 회피가 최우선이라는 의향을 확인하고 교섭을 추진함

## □ 주요 합의내용과 영향

- 이번 합의로 무역액 기준으로 미국 측은 약 92%, 일본 측은 약 84%의 관세가 앞으로 철폐됨
  - 철폐할 방침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자동차부품에 대한 관세도 포함되는데, 철폐 시기는 제시되지 않고 사실상 뒤로 미뤄진 상태임
- 미일무역협정 체결로 일본이 수입하는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, 와인 등의 관세가 단계적으로 인하됨
  - 슈퍼 등이 관세 인하분을 소매가격에 반영함으로써, 소비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전망이다
  - TPP 발효국 모두 관세가 동일하게 되는 품목이 많고, 일본시장에서 각국산 식품경쟁이 가속될 것으로 보임
- 미국이 무역교섭에서 강하게 요구하고 있던 쇠고기의 관세율은 협정 발효 후, 현재의 38.5%에서 TPP 발효국과 동일한 26.6%로 일거에 인하됨
  - 그 후도 단계적으로 인하되어, 2033년도에 9%로 인하됨. 관세인하의 영향을 단순계산 하면, 협정 발효 시에는 10%정도, 최종년도에는 20%정도 가격이 하락하게 됨
- TPP 효과로 먼저 관세가 인하된 캐나다산과 뉴질랜드산 쇠고기는 일본시장에서 점유율을 높이고 있음
  - 2019년 1-7월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점유율은 39.7%로 전년동기의 40.1%에 비하여 0.4%포인트 저하된 한편, 캐나다는 6%로 동 2.7%포인트, 뉴질랜드는 3.4%로 동 0.9%포인트 확대됨
- 초점이 되고 있는 것은 실질적인 저율관세의 수입한도 상한인 세이프가드의 발동 기준임
  - 미국산 쇠고기에 대하여 2020년도는 24.2만 톤으로 설정, 수준은 매년 증가함
    - TPP 각국에 대한 세이프가드도 병존하기 때문에, 일본정부는 TPP 참가국인 호주와 캐나다의 TPP 한도를 줄이도록 재교섭할 방침임

- 돼지고기는 저렴한 부위에 적용되는 종량세를 1kg당 482엔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하여 2027년도에 50엔으로 인하. 고액품에 대해서는 4.3%에서 인하하여 2027년도에 제로로 인하
- 일본무역통계에 의하면 2019년 1-7월의 미국산 돼지고기의 수입은 전년동기비 1.3% 감소
- 관세 인하에서 선행한 TPP 발효국과 EU가 플러스인 가운데, 미국은 마이너스. 앞으로 관세 인하로 소매가격이 하락하면 점유율이 회복될 것으로 보임
- 미국산 와인의 관세(15% 또는 1리터당 125엔)는 단계적으로 인하, 7년째에서 완전 철폐됨. 최종적으로 보틀 1병당 약 94엔의 관세가 철폐되어 수입가격은 평균 10% 정도 낮아짐
- 미국산 과일은 오렌지 등의 관세율이 단계적으로 인하됨. 판매가격이 20%이상 인하할지도 모른다는 지적임
- 쌀은 TPP에서 인정된 對美수입한도(최대 연간 7만톤)를 이번에는 설정하지 않음
- 소맥은 최종적으로 TPP와 같은 수입한도(최대 연간 15만톤)를 설정함으로써 합의에 이름
- 일본에서 미국으로 수출된 공산품에서는 TPP 정도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성과를 올림
  - 일본기업이 높은 점유율을 가진 공작기계는 미국이 협정발효 이후 2년간 4.2%의 관세를 철폐하게 됨. 공산품의 부품에서도 에어컨부품은 1.4%의 관세를 협정발효와 동시에 철폐됨

#### □ 미일 무역협정, 일본의 GDP 0.8% 끌어올려

- 한편, 일본정부가 공표한 미일무역협정의 경제적 효과에 의하면, 동 협정의 발효로 실질 GDP가 약 0.8%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시산. 2018년도 GDP 수준으로 환산하면, 약 4조엔에 상당하는 규모임
  - 그리고 약 28만명의 고용창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됨
- 이 같은 시산결과는 미국이 일본산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에 부과하고 있는 2.5%의 관세가 철폐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음. 일본정부는 자동차와 자동차부품의 관세에 관하여 미국 측과 계속 협의한 후에 철폐한다고 설명
- 협정 발효로 관세 삭감과 기업들의 생산성 향상을 통하여 투자 및 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
- GDP증가의 내역을 보면 민간소비가 0.5%, 수출과 투자가 각각 0.2%, 정부소비가 0.1% 증가함. 한편 수입은 0.2% 감소할 전망이다
- 일본정부는 이제까지 미국이 탈퇴하기 전 TPP의 GDP 증대 효과를 2.6%, 미국의 탈퇴 후 TPP11은 1.5%로 시산한 바 있음
- 니시무라 경제재정·재생상은 미일 2국간 협정은 다국간 협정과 같이 여타 참가국과의 상승 효과가 작용하는 것은 기대할 수 없다고 설명
- 일본 농림수산성은 10월 18일 자민당의 회합에서 일본 내 농림수산물 생산 감소액은 약 600억-1,100억엔에 달할 것이라는 시산결과를 제시

## □ 남아있는 트럼프 리스크

- 그러나 아직도 과제는 남아있음
- 트럼프 대통령은 포괄적인 협정에 가급적 가일층의 교섭을 원하고 있어, 라이트 하이지 미국 측 대표는 2020년 봄 이후에 제 2라운드에 들어갈 것임을 강조
- 일본 측은 지속적인 협의의 범위를 미국이 유보하는 자동차관세의 인하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나, 미국 측은 약가제도의 개정 및 금융·통신 분야의 시장개방을 요구하고 있어 서비스 및 비관세장벽이 다음 초점이 될 것으로 보임

## □ 미일 무역협정 합의에 따른 국내대책으로 농가지원 수출촉진책

- 무역협정 체결의 합의 영향으로 일본정부는 새로운 국내대책을 검토하기로 함
- 쇠고기 등의 농산품에서 농가를 지원, 수출추진 등에도 새로운 지원방침을 책정. 2019년 말에 완성할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반영을 목표로 하고 있음
- 미일 양국은 농산품, 공산품, 디지털 분야에서의 룰 제정 등, 3개 분야에서 무역교섭의 최종합의에 이룸
- 이 중 농산품에서는 일본 측의 시장개방에 대하여 TPP에서 인정된 수준의 틀 내로 그침
- 예를 들면, 쇠고기에 적용되는 38.5%의 관세율은 협정 발효 후는 TPP에 가맹한 다른 국가들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하, 최종적으로는 9%로 인하하고 돼지고기도 동일하게 인하함

- 한편, 미국으로 수출되는 일본산 쇠고기의 저율관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치를 취함. 간장과 과자류, 꽃꽂이용 꽃가지 등 일본 사업자의 수출관심이 높은 42개 품목의 관세 삭감을 얻어냄
- 이에 입각하여 일본정부는 국내대책을 검토하고 있음
- 미국산 쇠고기와 돼지고기로 예상되는 수입증가에 대응하기 위해, 국내 축산업과 관련 유통업의 경쟁력강화책을 담음
- 구체적으로는 송아지의 공동육성시설 설치 및 현장에 기계도입 등을 통하여, 축산업의 비용 절감을 추진. 미국으로의 수출환경 정비 영향으로 일본산 쇠고기의 해외 전개도 지원
- 일본정부의 TPP 등 대책본부와 농림수산성이 여당과 조정, 2019년 가을을 목표로 TPP 등 관련정책대강을 이번 합의를 받은 내용으로 2020년에 개정할 방침임
- 일본 농림수산성은 장래에는 일본에 대한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고 보고, 쇠고기에 국한하지 않고 일본의 농업이 타격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방침임

## □ 평가

- 미일 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일본의 GDP 증대효과는 0.8%로 미국이 탈퇴하기 전 TPP의 GDP 증대효과 2.6%, 미국의 탈퇴 후 TPP11의 GDP 증대효과 1.5%에 비하면 적은 수준임
- 이는 미일 무역협정이 2국간 협정이라는 점에서 TPP 등과 같은 다국간 협정에서처럼 여타 참가국과의 상승효과가 작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임
- 그러나 일본이 최소한의 목표로 설정한대로 자동차 분야의 고율관세와 수량규제 회피, TPP 수준으로의 농산물 시장개방 억제 등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소기의 성과를 보았다고 할 수 있음
- 다만 앞으로 서비스 및 비관세장벽 등에 관한 협상이 남아 있는 바, 그 결과 여하에 따라 미일무역협정의 종합적인 평가가 가능함

## I. 한일 경제 동향

### □ 對日 무역구조

- 한일 간 무역은 구조적으로 품질 등에 의해 가격차이가 있는 산업 내 수직적 제품 차별화 무역이 주류를 이루고 있음
  - 이에 한일 간 무역은 가격환산품질경쟁력에 의해 결정되는 부분이 큼
- 한국의 對日 무역구조는 섬유류와 농수산물 등 일부 산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역조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자본재, 부품, 소재류 분야에서 역조 폭이 큼
  - 對日 무역흑자를 한 번도 기록한 적이 없는 한국의 만성적인 對日역조는 한마디로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이 일본제품의 對韓 경쟁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약한데 기인하고 있음
  - 생산비용과 품질 및 환율 외에도 일본의 비관세장벽과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국제품의 對日경쟁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, 對日 비관세장벽 대책과 일본인 직접투자정책은 對日통상정책의 핵심임
- 2018년 기준 한국 수출의 對日 의존도는 5.1%, 수입의 對日 의존도는 10.2%로 2000년의 각각 11.9% 및 19.8%에 비하여 크게 낮아진 수준임
  - 한편, 2000년-2018년 기간 중 일본의 對韓 수출의존도는 6.4%에서 7.1%로 높아진 반면, 對韓 수입의존도는 5.4%에서 4.3%로 낮아짐

### □ '19. 9월 중 對日무역

- '19. 9월 對日 무역적자는 1,500백만 달러로 4개월 만에 전월대비 적자폭이 축소
  - 對日수출의 증가 반전과 對日수입의 감소에 따른 것임
- 對日수출은 2,321백만 달러로 전월의 큰 폭 감소에서 3.1%의 증가로 반전
  - 금속광물 대신에 산업기계가 10대 對日수출품목에 포함된 가운데, 광물성연료가 對日수출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(지표 1)

- 對日수출증가품목 중에서는 전자부품의 對日수출증가폭이 20.6%로 가장 큼
- 對日수출감소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의 對日수출감소폭이 -14.6%로 가장 큼
- 對日수입은 3,821백만 달러로 전월대비 1.7% 감소
  - 10대 對日수입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전자부품이 對日수입 1위 자리를 유지하고 있음(지표 2)
  - 소수의 對日수입증가품목 중 전자부품의 對日수입증가폭이 11.3%로 가장 큼
  - 對日수입 감소 품목 중에서는 석유화학제품과 플라스틱제품의 對日수입 감소폭이 8.9%로 가장 큼

〈 2019년 9월 對日 수출입 및 무역수지 (백만 달러,%) 〉

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對日수출	2,251	-2.6	-11.3	2,321	-6.0	3.1	21,362	-5.6
對日수입	3,886	-8.2	-6.5	3,821	-8.6	-1.7	36,303	-11.5
무역수지	-1,635	-10.3	0.8	-1,500	-12.4	-8.3	-14,941	-18.8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□ 일본인 직접투자

- ‘19.3분기 일본인 직접투자는 593백만 달러로 2분기에 이어 109.5%의 증가율을 보임
  - 전년동기대비로 볼 때도 ‘19.3분기의 일본인 직접투자는 518%로 대폭 증가했는데, 이는 일본인 직접투자가 한일관계악화에 직접적인 마이너스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함
- 한편, 일본 측의 국제수지 기준으로 본 ‘19.8월 일본의 對韓직접투자는 193억엔으로 전월대비 25.5% 감소로 2분기 연속 감소
  - 8월의 對한국직접투자가 감소한 것은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 감소에 따른 것으로, 이 역시 일본의 직접투자통계가 국제수지 기준이기 때문에 투자의 실행과 상당한 시차가 있는 만큼, 한일관계의 악화 영향이 그 요인이라고 보기는 어려움
  - ‘19.8월 일본의 전체 해외직접투자에서 점하는 對韓직접투자 비율은 전월과 같은 0.4%



## &lt; 일본인직접투자 추이 &gt;

		2017	2018	'19 2분기	'19 3분기	'19.7월	'19.8월
신고 기준	對韓 일본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1,862 (90.1)	1,301 (-30.1)	283 (11.4)	593 (109.5)	-	-
	전체 對韓 외국인직접투자 (백만 달러, %)	22,970 (7.8)	26,901 (17.1)	1,267 (-60.0)	3,613 (185.2)	-	-
국제수지 기준	일본의 對韓 직접투자 (억 엔, %)	4,112 (18.8)	6,653 (61.8)	-	-	259 (-58.0)	193 (-25.5)
	일본의 對세계 직접투자 (억 엔, %)	559,108 (-18.0)	643,235 (15.0)	-	-	63,611 (52.7)	43,823 (-31.2)

주 : ( )내는 전기비 증가율

자료 : 산업통상자원부, 일본재무성

## &lt; 최근 투자협력 사례 &gt;

- 충청남도가 일본 케이제이씨(KJC), 모리린 등 2개사로부터 각각 500만 달러씩 1,000만 달러 규모의 외자를 유치(NEWSIS 2019/10/18)
- KJC는 일본 및 아시아 지역에서 유아용 식기 및 장난감 등을 생산·유통하는 한국계 글로벌 기업임
- 모리린은 중국, 태국 등 아시아 지역에서 23여개 원사 및 의류 공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기업으로, 당진 합덕산단 1만 3,165㎡ 부지에 500만 달러를 투입, 폴리에스테르 원착사 생산 공장을 신설할 계획임

## □ 인적교류

- '19. 9월 일본인 한국방문자 수, 전월대비 23.8% 감소
- '19. 9월 한국을 방문한 일본인 방문자수는 251,119명으로 전월대비 23.8% 감소, 전년동월대비로는 1.3% 증가
- 반면, '19. 9월 한국인의 일본방문자 수는 전월대비 34.8% 감소
- '19. 8월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 방문자 수는 201,200명으로 전월대비 34.8% 감소, 전월에 이어 큰 폭 감소. 전년동월대비로는 58.0% 감소
- 외국인의 전체 일본방문자수는 전년동월대비 증가했는데도 한국인 방문자수가 크게 줄은 데는 한일관계의 악화 영향 요인이 컸음

## II. 이달의 일본경제

### 1. 경기·무역 동향

#### □ 경기동향지수의 하락과 수출의 약세에도 경기는 완만한 회복세

- 일본 내각부가 10월 7일 발표한 ‘19.8월 경기동향지수(CI, 2015=100)는 경기현황을 나타내는 일치지수가 전월보다 0.4포인트 낮은 99.3으로 해외경제의 감속으로 생산이 둔화된 것이 지수를 끌어내렸음
- 지수의 추이로부터 기계적으로 결정되는 경기의 기초판단은 4개월 만에 악화로 반전, 10월 소비세 인상을 앞둔 국내 경기침체를 반영
- 그러나 일본정부는 공식적인 경기인식을 나타내는 월례경제보고에서 완만한 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데, 이는 일치지수 외에 기업의 경기현황감 등 많은 지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 것임
- 수출의 약세에도 불구하고 특히, 기업수익이 높은 수준에서 견조하게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, 고용은 착실히 개선되고 있는 점을 고려한 것임
- 앞으로 당분간은 약세가 남아있으나 고용·소득환경의 개선이 계속되는 가운데 각종 정책의 효과가 있어 완만한 회복세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
- ‘19.8월의 실질소비는 전년 동월대비 1.0% 증가
- 소비세 인상에 따른 가수요는 전회 인상 시 만큼 크게 증가하지 않은 가운데, 경자동차와 에어컨 등 가정용 내구소비재의 소비 지출이 호조
- ‘19.8월의 민간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「선박·전력을 제외한 민간수요」 기계수주액은 전월대비 2.4% 감소로 2개월 연속 감소
- 그러나 해외경제의 영향을 받기 쉬운 범용·생산용 기계와 업무용기계는 전월의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반전

- 「법인기업경기예측조사」에 의하면, 2019년도 설비투자는 전년도 대비 8.3% 증가할 것이며, 건조한 내수와 일손부족을 반영하여 제조업·비제조업 모두 전년도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
  - 「일본은행 단관」(2019년 9월 조사)에서도, 전 산업의 2019년도 설비투자 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. 일본은행단관에 의한 기업의 설비판단은 제조업에 과부족감은 보이지 않으나 전체로는 부족감이 나타나고 있음
  - 세계경제의 감속우려로 수출기업들의 체감경기는 악화하고 있으나 기술혁신을 고려한 성장분야에 대한 투자나 일손부족에 따른 생력화 투자는 계속한다는 자세를 보이고 있음
- ‘19.8월의 광공업생산지수는 전월대비 1.2% 감소로 반전
- 미중 무역마찰에 태풍까지 겹쳐 15개 업종 중 12개 업종이 감소한 가운데, 특히 철강·비철금속공업의 생산 감소폭이 -2.7%로 컸음
- ‘19.8월의 완전실업율은 전월보다 7월과 같은 2.2%
- 일본 총무성에 의하면 경기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실업률은 거의 제로로 완전고용에 가까운 상황임
  - 완전실업자수도 154만명으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한 가운데, 자발적 이직자가 68만명, 비자발적인 이직자도 36만명으로 모두 전월과 같은 수준
- 유효구인배율은 3개월 동안 계속된 하락세가 멈춰 7월과 같은 1.59배
- 미중 무역마찰의 영향으로 신규 구인수가 감소한데 따른 것으로, 제조업의 신규 구인수 감소폭이 -15.9%로 큼
  - 그러나 여전히 일손부족을 배경으로 기업들은 처우개선 등을 통하여 채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, 생력화 및 자동화 투자를 늘리고 있음
- ‘19. 9월의 수출수량은 전월대비 4.8% 증가로
- 미국과 유럽의 수출수량은 증가한 반면, 중국으로의 수출수량은 3.6% 감소
- ‘19.9월의 소비자물가는 생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로 전월에 이어 전년동월대비 0.3% 상승, 전월대비로는 0.1% 하락

- 특히, 전년동월대비로 본 물가 상승폭은 2017년 4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낮은 수준으로 일본은행의 목표치 2%에는 요원함
- 에너지가격의 하락 영향이 컸음
- 일본의 실물경제가 개선되는 중에도 물가와 임금 상승폭이 적은 편인데, 이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디플레이션과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기업과 가계의 디플레이션 심리가 남아있어, 중장기적인 예상물가 상승률이 좀처럼 상승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
  - 일본이 강력한 금융완화를 계속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임
  - 일본은행이 목표로 하는 물가상승 2%를 달성하기에는 시간이 걸릴 전망

## □ 무역수지 적자폭 감소

- '19. 9월 무역수지(통관기준)는 1,230억엔 적자로 전월보다 적자폭이 소폭 감소
  - 최대 적자국인 중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전월의 2,168억 엔 적자에서 4,411억엔 적자로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한편, 최대 흑자국인 미국에 대한 무역흑자는 전월의 4,720억엔에서 5,641억 엔으로 흑자폭이 확대
  - 무역적자폭 축소는 수출, 수입 모두 전월의 감소에서 증가로 반전된 가운데, 수출의 증가폭이 수입의 증가폭을 상회한데 따른 것임
- '19.9월 수출액은 전월대비 4.9% 증가한 6조 3,684억 엔
  - 5대 수출 품목은 변함이 없는 가운데, 5대 품목 모두 전월대비 수출이 증가(지표 4)
  - 자동차의 수출증가폭이 13.6%로 가장 큼
  - 그러나 주요 국가지역으로의 수출에서는, 미국과 중국 등 미중무역마찰 당사국에 대한 수출은 감소를 보인 반면, EU와 아세안 및 대만 등 여타 국가지역에 대한 수출은 증가하는 양극화 현상을 보임
  - 한일관계 악화의 당사국인 한국에 대한 수출도 4.7% 감소(지표 5)

- '19.9월 수입액은 전월대비 3.2% 증가한 6조 4,915억엔
  - 5대 수입 품목에는 석탄 대신에 통신기가 포함된 가운데, 통신기의 수입 증가폭이 전년대비 86.2%로 가장 큼(지표 6)
  - 수입 감소품목 중에서는 원유의 수입 감소폭이 -10.0%로 가장 큼
  - 주요 국가·지역별 수입은 미국과 호주를 제외한 모든 지역으로부터의 수입이 증가(지표 7)
  - 한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월대비 4.6% 증가
- 미중 무역마찰로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對日수출, 對日수입 모두 줄고 있는 반면, 중국은 對日수출은 늘고, 對日수입은 줄어드는 미중 간 비대칭적인 효과가 발생하고 있음

〈 2019년 9월 일본의 수출입 (조엔, %) 〉

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수출	6.1	-8.2	-7.6	6.4	-5.2	4.9	57.3	-4.8
수입	6.3	-12.0	-8.7	6.5	-1.5	3.2	58.8	-2.3
수지	-0.1	-69.6	-66.7	-0.1	-	-9.8	-1.4	-

자료 : 재무성

- '19.9월의 엔화환율(대미달러)은 107.4엔으로 전월보다 1.0% 엔저
  - 10월 들어서는 미국의 장기금리 상승으로 108엔대의 엔저가 일시 진행되다가,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우려로 107엔대의 엔고로 반전, 이후 미국 장기금리의 재상승 등으로 다시 108엔대의 엔저가 지속
  - 對원화 환율은 100엔당 1,116엔으로 전월대비 1.8% 원고(엔저)
- '19.8월의 해외직접투자는 전월대비 31.2% 감소한 4조 3,823억엔
  - 일본의 해외직접투자는 그린필드형 투자와 M&A가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, 2016년 이후 M&A의 비중이 그린필드형 투자를 상회하고 있을만큼 M&A형 투자가 증가하고 있음

- 일본의 대외 M&A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로는 ①해외 현지의 수요확대를 예상한 대외 M&A의 증가, ②금융완화책과 기업가치상승에 대한 의식개혁의 영향, ③세계적인 크로스보더 M&A증가 등을 들 수 있음
- 對한국 직접투자는 전월대비 58.0% 감소한 259억엔
- ‘19.8월의 경상수지는 전월에 이어 2조 1,577억엔 흑자로, 특히 전년동월대비로 18.3% 증가하여 8월로서는 과거 최대 흑자폭을 보임
- 이는 2개월 만에 무역수지가 흑자를 기록한데다, 여행수지도 한국으로부터의 여행객이 크게 감소했는데도 여타 국가로부터의 견조한 수요에 힘입어 호조를 보인데 따른 것임

## 2. 경제정책

### □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장

- 2019년 10월 1일부터 일본의 소비세율이 8%에서 10%로 인상됨
- 이번 소비세 인상에 따라 고령화로 늘어난 사회보장비용을 사회 전체로 부담하는 개혁이 일보 전진하게 되었음
- 그러나 미중무역마찰로 인한 세계경제의 감속국면에서 연평균 5.6조엔의 국민부담 증가는 완만한 회복을 계속해온 일본경제의 저력을 다시 한 번 시험대에 올려놓았음
- 노후 및 양육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불식하는 제도개혁도 하고 있음
- 일본정부가 경계하고 있는 것은 2014년 소비세 인상의 트라우마임
- 개인소비가 줄어들고 GDP는 2009년 이후 마이너스 성장에 빠짐. 소비는 현재 연간 300조엔까지 늘어났으나 8%전의 2013년도 수준(301조엔)까지는 돌아가지 않고 있음
- 이러한 교훈에서 일본정부는 이번 소비세인상으로 2.3조엔 규모의 두터운 대책을 내놓고 있음
- 특히 10월 이후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론 감세, 자동차세 감세는 가수요를 소폭으로나마 억제할 것으로 보임

- 도쿄도 내의 혼다 정구판매점은 소비세 인상 후 반동적인 감소도 억제될 것으로 예상
  - 중소점포에서 구입한 상품을 무현금으로 결제한 소비자에게 원칙적으로 5%를 포인트로 환원하는 제도도 소비를 지탱해줄 가능성이 있음
- 증세로 가게 부담이 무거워지면 무현금결제에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를 중심으로 절약 지향성이 강해질 우려도 있음
  - 연금수입에 의존하는 층의 가전제품 소비의욕은 크게 감소. 4천만명의 연금수급자가 지갑을 닫으면 개인소비 전체의 수준을 끌어내릴지도 모름
- 2014년 증세 시에는 수출이 전년대비 10%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외수가 강력했으나, 이번에는 미중무역전쟁의 영향으로 2019년 8월까지 9개월 연속 전년수준을 밑돌
  - 내수도 2020년 여름 동경올림픽이 끝나면 공공사업 등 관련 수요가 떨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음. 소비가 냉각되어 경제는 견인력을 잃게 되기 때문임
- 이번 세수증가는 사회보장 재원에 충당됨
  - 고령화로 늘어나는 연금, 의료 등의 비용은 이제까지 현역세대의 보험료부담 증가나 국가의 채무로 충당해왔음
  - 소비세 10%는 고령자도 포함한 전 세대에서 고통을 나누는 구조개혁의 의미가 있음
- 그렇다고는 하나 개혁의 효과는 한정적임
  - 2018년 121조엔이었던 사회보장급부비는 2025년에 140조엔으로 팽창됨
  - 은퇴세대의 연금과 의료비를 지탱해주는 현역세대의 부담은 앞으로도 무거워지고, 그렇다고 이를 방지하면 젊은 세대의 장래불안을 불식하지 못하고 중장기에 걸쳐 소비를 떨어트리는 요인도 됨
- 사회보장의 핵심에도 과제가 많음
  - 일본 후생노동성에 의하면, 경제성장률이 횡보를 보이는 경우, 약 40년 후에 연금수령을 개시하는 세대의 연금수준은 금년 65세와 비교하여 30%정도 저하됨
  - 간병관련 인력도 2025년에 수십만 명 부족할 것으로 예상됨



## ○ 양육문제도 마찬가지로

- 중세재원의 일부로 10월부터 유아교육보육의 무상화가 시작되면, 보육소 이용을 희망하는 사람도 늘어날 것임. 4월 시점에서 16,700여명으로 과거 최소였던 대기아동이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음

## ○ 소비세 10%시대에 일본경제에 필요한 것은 내수를 두텁게 하는 개혁임

- 1%정도에 불과한 잠재성장률을 끌어올리는 규제개혁에 더하여 성역 없는 개혁으로 사회보장제도의 지속력을 높이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데 컨센서스가 모아지고 있음

## &lt; 평가 &gt;

- 이번 소비세율 인상은 아베정부 출범 이후 2번째로서 무엇보다도 재정 악화 속에서 지속가능한 사회보장 유지에 필요한 재원마련을 위한 교육지책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님
- 그러나 소비세 인상이 경기에 미치는 악영향은 피할 수 없는 만큼, 일본정부가 두터운 보완책을 마련한 것은 그만큼 경기에 배려하고 있음을 시사해줌

## □ 경제산업성,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사업 지원으로 산업경쟁력 강화

- 일본 경제산업성이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해 2020년도부터 지역상사와 지방은행 등에 의한 새로운 수출지원 모델의 실증작업에 나섬
  - 일본 전역의 지역상사와 지방은행으로부터 기획을 모집, 실증에 필요한 비용을 조성
  - TPP의 발효 등으로 중소기업에서도 수출을 확대할 기회가 열림에 따라, 일본무역진흥회 등 공적기관에 더하여 지역 민간 사업자에 의한 수출지원활동을 지원하고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로 연결
-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지역상사와 지방은행 등 민간사업자가 기획한 수출지원 모델이 공모대상이 됨
  - 예를 들면,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할 때 리스크 관리나 수송비용, 상품의 선전까지를 종합지원하는 사업과 방일외국인 관광객이 귀국 후에도 중소상품을 재구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정비하는 사업 등을 상정하고 있음



- 일본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EC시장의 확대 등으로 매년 증가경향에 있으나, 직접 수출을 하는 기업의 비율은 제조업에서는 전체의 5%에 그치고 있는데, 수출대상국의 법률이나 상관습 파악, 판로개척이 중소기업 혼자로는 어려운 것이 배경임
- 경제산업성은 이제까지 JETRO 등과 연대하여 중소기업의 해외전개지원 서비스 「신수출대국 컨소시엄」과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파는 「저팬모델」등 각종 지원시책을 제공해 왔음
- 한편, 최근에는 지방상사와 지방은행 등 민간사업자가 신규사업의 일환으로 거래처 중소기업의 수출지원에 나서는 움직임이 증가하고 있음
- 경제산업성은 실증을 통하여 지역 민간사업자에 의한 수출지원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지원에 가일층 충실을 기할 계획임
- 중소기업의 해외전개를 지원하여 산업경쟁력 강화로 이어지게 한다는 것이 근본적인 취지임

#### < 평가 >

- 이번에 새로이 마련된 수출지원 모델은 이제까지 실시되고 있는, 「신수출대국 컨소시엄」과 해외 전자상거래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상품을 파는 「저팬모델」등 각종 지원시책과 비교하여, 지역의 상사와 은행 등 민간사업자로 하여금 중소기업의 수출활동을 도와주도록 하는 점에서 차별화됨
- 이번 지원책은 경제산업성이 이들 민간사업자에게 필요한 비용을 조성해준다는 점에서는 중소기업의 수출확대를 위한 간접지원이라고 할 수 있음
- 그리고 그 대상이 중소기업이 전자상거래를 활용하여 해외시장에 수출할 때 리스크 관리나 수송비용, 상품의 선전까지를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사업과 방일외국인 관광객이 귀국 후에도 중소상품을 재구입할 수 있는 방식을 정비하는 사업을 상정하고 있는 점에서 획기적이며 눈여겨 볼만한 지원책임

### 3. 기업전략

□ 리튬 전지의 부재는 일본기업에 강점, 완성품은 한국과 중국이 대두(일본경제신문 2019/10/10)

- 2019년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아사히카세이의 명예펠로 요시노 아키라(吉野 彰) 메이조 대학 교수가 개발한 리튬 전지는 스마트폰과 전기자동차를 탄생시키고 산업계에 엄청난 변혁을 가져다주었음
- 리튬전지의 세계시장이 2022년에 7조엔을 상회할 것이라는 예측도 있는데, 관련 부재도 포함하여 일본 업체가 강점을 발휘해왔던 분야임
- 한편 최근 중국과 한국기업들의 급속한 대두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음
- 요시노 교수는 정극재, 부극재, 전해액, 세퍼레이터(절연재)의 최적재료를 조합시킨 전지의 기본구조를 개발했음
  - 이 4가지 부재는 전지의 출력이나 안전성, 수명 등을 크게 좌우하는데, 일본의 소재 업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분야임
- 예를 들면, 요시노 교수가 소속된 아사히가세이(旭化成)는 2018년 시점에서 세퍼레이터의 세계 최대 업체임
  - 수지 등의 얇은 필름으로 동사가 강점을 지닌 인공투석막 등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음
- 아사히카세이는 2015년에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미국 리포어·인터네셔널을 2,600억 엔에 매수하는 등 사업을 강화하고 있음
  - 현재도 미국과 일본의 거점에서의 생산설비 증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1년도에 세퍼레이터의 연산능력을 2018년도 대비 배증시킬 계획임
  - 세퍼레이터 분야에서 3위인 도레이(東レ)도 2021년 여름 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, 항가리에 유럽 최초의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. 총 투자액은 약 240억엔으로 유럽에서의 보급이 예상되는 EV용 수요를 획득할 계획임
- 니켈과 코발트를 원료로 하는 정극재에서는 세계 1위의 스미토모금속광산(住友金属 鉱山)이 EV용을 중심으로 판대를 확대

- 특히 전지의 고용량화가 가능하여 한 번의 충전으로 주행거리가 증가하는 니켈계에 주력하고 있음
- 흑연을 주원료로 하는 부극재는 히타치카세이(日立化成)외에 미쓰비시케미컬과 쇼와덴코(昭和電工)가 관여하고 있음
- 전해액도 EV 등 자동차용에는 미쓰비시케미컬이 세계 1위임
- 먼저 노트북컴퓨터용 등에서 보급된 리튬이온전지이나, 앞으로 성장을 견인하는 것은 EV 등 차대용임
- 세계적인 환경규제 강화가 뒤바람이 되고 있는데, 조사기업인 후지경제에 의하면, 리튬이온전지의 2019년 세계시장 전망은 약 4조 7,900억엔. 2022년에는 약 7조 3,900억엔까지 확대될 전망이다
- 히타치카세이는 2012년에 흑연에 전지용량을 높이는 효과가 있는 실리콘을 조합시킨 제품을 실용화했음
- 한편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전지의 코모디티(범용품)화임. 당초에는 일본기업이 시장점유율의 태반을 점하고 있었으나 제조기술의 보급으로 진입장벽이 낮아져, 한국과 중국기업들이 저가격을 무기로 진입하고 있음
- 차대용 전지에서는 중국의 배터리 업체 CATL(寧德時代新能源科技; 닝더스다이 신에너지 과학기술 유한공사)이 파나소닉으로부터 시장점유율 1위의 자리를 빼앗음
- 리튬전지의 부재는 여전히 일본기업이 강점을 유지하고 있으나, 앞으로는 기술력과 수익 측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는가가 과제임

## < 평가 >

- 한중일은 3대 리튬전지 강국인데, 최근 중국이 저가의 부재를 앞세워 일본을 맹추격하고 있음
- 세계의 리튬이온 셀 제조업체들은 저가의 중국산 소재를 사용하고 있음
- 그러나 아직은 일본이 리튬전지의 부재 분야에서 일본이 앞서고 있는 것은 분명함

- 요시노 아키라 씨에 의하면, 리튬 전지가 스마트폰 등에 활용되며 인간의 생활을 바꾸는데 큰 기여를 했지만 이제 한 고비를 넘겼을 뿐, IT 모바일 혁명의 다음 주자는 ET(에너지 및 환경기술)혁명임
- 이에 우리도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시대의 도래를 앞두고 우리도 기술경쟁력 강화와 함께 제품 전략을 제대로 세워야할 것임

#### □ 도요타 계열, CASE로 맞추어 소프트웨어업체 중심으로 사업구조 전환(일본경제신문 2019/10/22)

- 완성차업체를 정점으로 한 일본의 계열구조가 한층 모습을 바꾸고 있음
  - 도요타자동차 그룹의 주요 16개사와 거래하고 있는 서플라이어 약 4만개사를 조사한 결과, 소프트웨어회사가 엔진 등 기존 부품업체를 처음으로 상회함
- 이를 촉진하고 있는 것은 다름이 아닌 자동운전과 전동화 등 CASE(연결되는 자동차, 자동운전, 세어링, 전동화)의 영향임
  - 닛산자동차가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약 20년 전에 해체에 착수했던 계열의 구조는 디지털화를 배경으로 새로운 지각변동에 직면하고 있음
- 도요타에 더하여 텐소와 아이신정기, 토요다방직 등 그룹내 주요 16개사와 거래하고 있는 기업 상황을 일본 제국뱅크가 조사한 결과, 16개사와 직접 거래하는 1차 하청과 1차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16개사와 거래하는 2차 하청 기업을 합친 총 38,663개가 대상
- 2018년도 조사에서는 소프트웨어 개발이 267개사로 약 40% 증가함. 전체에서 점하는 비율도 4.4%로, 내장 및 에어컨 등 종래형 자동차부품(259개사, 4.3%)을 제치고 처음으로 수위를 점함
  - 2차 하청에서도 소프트웨어 개발이 2014년도의 2위(749개사, 3.1%)에서 수위(1,340개사, 4.1%)로 됨
- 도요타는 AI 분야에서는 프리퍼드·네트워크에 100억엔 이상을 출자
  - 빅데이터 해석 업체인 알베리토와, 화상인식 및 차트로의 자동대화를 가능케하는 AI에 강한 파크샤·테크놀로지에 출자하는 등 디지털기술에 강점을 지닌 스타트업 기업들이 존재감을 높이고 있음

- 그 배경에 있는 것이 과거 20년 정도 급속히 진행된 자동차의 전자제어에 더하여, 현재 진행되고 있는 CASE의 흐름임
- 이미 실용화되고 있는 연결되는 자동차는 자동차 밖과의 통신이나 자동차의 상황을 파악하는 센서가 있음
- 세계 자동차업체나 대형 IT업체들이 개발경쟁을 벌이는 자동운전 분야에서는 도로 상황 파악이나 운전제어에 방대한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이 필요함
- 경제산업성은 차량 1대의 원가 중 2004년에 19%였던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의 비율이 2015년에 40%로 상승했다고 분석하고, 현재는 과반을 넘을 것으로 추정
  - 전자부품 등을 제어하는 반도체의 1대당 탑재금액도 급증. 미국의 조사업체에 의하면, 2007년의 288억 달러에서 2018년에는 429억 달러로 50% 증가했음. 2026년에는 629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측
- 도요타 사장은 100년에 한 번의 대변혁기에 대비한 디지털 대응에서 앞서가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위기감을 강조하고 있음
  - 동사의 2020년 3월기 연구개발비는 과거 최고인 1조 1천억 엔. 이중 CASE 관련에 할애하는 비율은 40%에 달하여 장래에는 50%까지 높일 계획임
- CASE의 파고는 서플라이어에 지각변동을 일으키고 있음
  - 소프트웨어와 전자부품에 강한 기업은 도요타 그룹과의 거래를 확대하는 기회가 되는 반면, 전기자동차에서는 휘발유탱크가 필요 없게 되는 등 기존 부품업체의 일부는 도태에 직면하고 있음

## < 시사점 >

- 앞으로 CASE가 대세를 이루게 됨에 따라 산업구조 측면에서는 종래 제조업 중심의 부품구조에서 AI와 소프트웨어 등이 중심으로 바뀌고 결국 산업구조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됨
- 기업측면에서는 일본형 다층적인 계열구조의 균열과 기존 부품업체의 도태까지도 예상해야만 하는 상황도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음

## 4. 산업기술

### □ 소재산업, 자동차스마트폰의 진화에 연구개발투자 확대로 대응(일간공업신문 2019/10/16)

- 일본의 소재산업 업계에서 연구개발투자의 증가기조가 계속되고 있음
  - 일본 총무성 조사에 의하면, 화학공업의 2017년도 투자액은 2011년도에 비하여 14.6% 증가
  - 화학품과 플라스틱제품 업체에서는 연구개발부문의 인원 증가가 계속되고 있음
- 일본의 소재 각사는 차세대 자동차의 보급과 초고속대용량통신에 사용되는 휴대전화 단말기의 진화에 대비하여 혁신적인 재료를 창출한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
- 일본 총무성이 2018년 12월에 공표한 2018년도 과학기술연구조사의 집계결과, 주된 소재산업의 연구개발비(대학 등 외부에 각출한 자금은 제외)가 최근 수년 일제히 증가세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음
  - 2017년도 투자액은 화학공업이 전년도 대비 0.4% 증가한 8,524억엔, 플라스틱제품업이 4.0% 증가한 1,960억엔, 철강업이 1.3% 증가한 1,598억엔, 비철금속업이 4.1% 증가한 1,438억엔에 달함
  - 증가율이 높은 것은 플라스틱제품과 화학공업으로, 동일본 대지진이 있었던 2011년에 비하면, 2017년도는 각각 33.0%, 14.6% 증가함
  - 철강업은 2011년도의 1,633억엔에서 중국제품과의 경쟁격화와 강재 가격이 폭락했던 2013년도에는 1,391억엔까지 떨어졌으나, 그 이후에는 증가경향에 있음
  - 화학공업과 플라스틱 제품업에서는, 연구보조자와 사무직원들을 포함한 연구개발 부문의 인원도 증가함. 화학공업에서는 연구자 1인당 연구비도 2011년도의 2,197만 엔에서 2,361만엔으로 증가함
- 차세대자동차의 개발 및 스마트폰의 고기능화 등 수요산업 측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대응이 소재산업에도 절실히 되고 있음
  - 탈 탄소화에 대한 사회적인 요구도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, 디스플레이의 대형화·박형화 및 전력절약, 자동차의 경량화 등을 노린 신재료의 연구개발에 주력하고 있음

- 그러나 소재 각 업종의 연구개발비를 총매출액 대비로 보면, 거의 일정한 비율로 추이하고 있으며, 화학공업에서는 대체로 3%대 후반, 철강업은 1%대 중반에 집중되고 있음
- 실적이 악화되면 이와 연동하여 연구개발투자도 감속할 가능성이 있어, 세계경제의 변조에 따른 현재의 경영환경 악화는 소재 각사들의 연구개발 전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임

## < 평가 >

- 차세대 자동차의 개발과 초고속대용량통신에 사용되는 휴대전화단말기의 진화 등 주요산업 측에서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는 기술혁신 혁신, 그리고 탈 탄소화에 대한 최근 일본소재업계의 대응은 혁신적인 재료의 개발을 통해서 산업별 투입계수의 저하와 생산성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

## □ 경제산업성,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 산업로봇서비스로봇의 개발·보급 지원(일간공업신문 2019/10/7)

- 일본 경제산업성은 심각한 일손부족 해소를 위해, 2020년도부터 혁신적인 로봇 개발과 보급에 착수함
- 산업로봇 분야에서는 핸들링 등 요소기술을 대상으로 대담한 기술혁신을 목표로 하는 산학공동연구를 지원하게 됨. 일반적인 로봇의 에너지효율을 현행 1.5배로 높임
-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로봇친화적인(협조적) 사회환경으로 변혁하는 연구를 보조하여 사회적 실행(implementation)을 가속시킴
- 산업로봇 관련 분야에서는 중국 등 해외기업의 추격이 거세고, 보다 고도의 기술을 목표로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임
- 한편, 원격제어나 소재 등의 요소기술은 성숙경향에 있어 메이커 단독으로 이노베이션을 일으키기는 어려움
- 이에 경제산업성은 혁신적인 씨앗을 가진 대학·연구기관에 착안, 야심적인 산학제휴의 연구에 예산을 투입할 방침임
- 2024년도까지 8개의 영역에서 새로운 요소기술을 확립. 이것들을 제품화하는 2030년 경에는 현행 40-50%정도인 에너지효율을 1.5배로 인상시킬 방침임



- 이를 위해 인공근육 등 이제까지 범위에 없었던 연구자와의 제휴도 검토하고 있음
- 한편, 서비스로봇 분야에서는 보급에 열쇠가 되는 포인트로서, 로봇을 받아들이는 인프라 측의 변혁을 들고 있음
- 예를 들면, 상업시설이나 공장에서 청소로봇이 원활하게 이동하여 청소하기 위해서는 장벽을 없애거나, 가구와 설비의 형상을 바꿀 필요가 있음
- 경제산업성은 로봇친화적인 시설환경이나 업무흐름의 변혁을 위해, 연구개발이나 실증을 지원할 계획임
- 사용자가 주도하는 형태로 인프라 측의 공통과제를 추출, 메이커와 시스템구축사업자(SI)가 협력하여 추진
- 청소나 운반, 경비 등 서비스로봇이 상업시설이나 식품공장 등에서 원활히 활약하는 사례를 상정하여 2024년도까지 3개 업종에서 사회적 실행 사례를 창출할 계획임

#### < 시사점 >

- 혁신적인 로봇의 개발과 보급은 일손부족을 대체하는 효과와 더불어 두 가지 면에서 경제발전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음
- 하나는 공급 측면에서 혁신적인 산업로봇의 개발을 통하여 에너지효율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음
- 또 하나는 새로운 서비스로봇을 개발하는 것보다는 로봇을 받아들이는 인프라 측의 변혁을 통하여 로봇에 대한 수요를 높임으로써 로봇친화적인 경제사회구조 실현과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큼



### III. KJCF & KJE News

#### □ 한일재단 & 한일경제협회 한일협력사업 및 행사 결과



#### “2019년도 모노즈쿠리 인재양성 관리자 과정”

일시 및 장소 : 2019.10.14~15.(국내 시흥), 16~19.(일본 와카야마)

내용 : 기업 경영위기 극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일본 제조업의 원천인 모노즈쿠리 관리자 육성 연수

참가 : 소재부품 중소기업 관리자 등 약 25명

## Ⅳ. 이달의 추천자료

□ 한일산업기술협력재단 연구리포트(<http://www.kjc.or.kr/jpinfo/report.jsp>)

[일본시장 연구자료] 對日수출분석: IV. 일본의 NTB와 對日수출 (2019-10-22)

[일본시장 연구자료] 對日수출분석: III. 한일 기업간 제휴와 일본인직접투자를 통한 對日수출 (2019-10-08)

□ 일본기관 연구보고서

○ 『제4차 산업혁명 속에서 변용하는 국제무역과 해외직접투자』 경제산업연구소, '19.10.25
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pdp/19p018.pdf>

○ 『일본판 브로드웨이 구상에 관한 기반조사』 경제산업성, '19.10.22

[https://www.meti.go.jp/meti\\_lib/report/H30FY/000452.pdf](https://www.meti.go.jp/meti_lib/report/H30FY/000452.pdf)

○ 『환율과 일본의 기업내·기업간 무역』 경제산업연구소, '19.10.19
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dp/19e082.pdf>

○ 『ITI 국제직접투자 매트릭스(2019년판)』 국제무역투자연구소, '19.10.17

[http://www.iti.or.jp/report\\_93.pdf](http://www.iti.or.jp/report_93.pdf)

○ 『산업구조심의회 통상·무역분과위 안전보장무역관리소위원회 중간보고』 경제산업성, '19.10.9

[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tsusho\\_boeki/anzen\\_hosho/20191008\\_report.html](https://www.meti.go.jp/shingikai/sankoshin/tsusho_boeki/anzen_hosho/20191008_report.html)

○ 『제4차 산업혁명과 일본산업의 이노베이션 능력』 경제산업연구소, '19.10.9

<https://www.rieti.go.jp/jp/publications/pdp/19p020.pdf>

○ 『중소기계·금속공업의 경쟁력 원천에 관한 계량분석』 상공종합연구소, '19.10.8

[https://www.shokosoken.or.jp/chousa/youshi/2019/2019\\_01.pdf](https://www.shokosoken.or.jp/chousa/youshi/2019/2019_01.pdf)

○ 『일본기업의 가치창조경영에 관한 행동지침; 이노베이션 경영시스템의 가이드스규격 (ISO56002)』 경제산업성, '19.10.5

<https://www.meti.go.jp/press/2019/10/20191004003/20191004003-1.pdf>

○ 『에너지생산성 개선과 전체효율』 일본정책투자은행, '19.9.28

[https://www.dbj.jp/ricf/pdf/research/DBJ\\_RCGW\\_DP64.pdf](https://www.dbj.jp/ricf/pdf/research/DBJ_RCGW_DP64.pdf)

## V. 한일경제지표

## 1) 2019년 9월 對日 수출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목명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계	2,251	-2.6	-11.3	2,321	-6.0	3.1	21,362	-5.6
1	광물성연료	311	-27.2	-23.8	348	-36.5	11.9	3,218	-12.1
2	철강제품	338	9.6	-7.7	310	-0.5	-8.3	3,117	2.6
3	정밀화학제품	170	7.3	-0.6	177	13.7	4.2	1,565	5.0
4	전자부품	136	-1.9	-9.3	164	5.3	20.6	1,315	-5.1
5	산업용전자제품	119	4.9	20.2	135	43.6	13.4	1,008	-9.0
6	석유화학제품	123	-38.6	-7.5	105	-40.0	-14.6	1,143	-32.3
7	수송기계	92	-2.6	-20.0	99	-13.5	7.6	945	-2.7
8	농산물	102	7.5	-8.1	98	21.5	-3.9	893	8.1
9	기계요소공구금형	92	7.2	-8.0	94	17.2	2.2	830	6.7
10	산업기계	74	-6.8	-8.6	73	-6.4	-1.4	718	4.9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2) 2019년 9월 對日 수입 10대 품목 (백만 달러, %)

순 위	품목명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	총 계	3,886	-8.2	-6.5	3,821	-8.6	-1.7	36,303	-11.5
1	전자부품	533	-2.3	-4.1	593	9.5	11.3	4,653	-2.9
2	철강제품	475	-13.2	-11.7	508	2.2	6.9	4,854	-4.3
3	정밀화학제품	399	-0.2	-3.9	374	-1.1	-6.3	3,468	-2.5
4	정밀기계	283	-29.2	-3.4	275	-42.8	-2.8	2,914	-47.2
5	석유화학제품	292	-14.6	-2.7	266	-24.8	-8.9	2,848	-4.7
6	산업용전자제품	230	-4.7	-11.9	217	-12.2	-5.7	2,090	-14.5
7	플라스틱제품	221	17.2	8.3	200	16.2	-8.9	1,701	2.9
8	기초산업기계	175	-14.6	-12.9	186	-4.5	6.3	1,728	-17.6
9	수송기계	190	7.5	-2.6	179	-14.3	-5.8	2,054	2.8
10	산업기계	141	-13.2	-27.3	137	-18.6	-2.9	1,594	-2.5

자료 : 한국무역협회

## 3) 일본 주요경제지표

구 분		2018	2018		2019				
			3/4	4/4	2/4	3/4	7월	8월	9월
GDP증가율(실질, 연율,%)		0.7	-2.6	1.9	1.3p)	-	-	-	-
경기동향지수(2010년=100)		-	-	-	-	-	99.8	99.7	99.3
광공업생산증가율 (전기비, %)		1.0	-1.3	1.9	0.6	-	1.3	-1.2	-
실질소비증가율 (전년비, %)		0.4	-0.2	0.6	2.6	-	0.8	1.0	-
기계수주액증가율 (전기비, %)		3.6	0.9	-4.2	7.5	-	-6.6	-2.4	-
소비자물가 상승률(%)	전기비	1.0	0.3	0.2	0.0	-	0.4	-0.1	-
	전년비	1.0	0.9	0.9	0.8	-	0.6	0.3	-
실업률(%)		2.4	2.4	2.4	2.4	-	2.2	2.2	-
수출액(조엔)		81.5	20.1	21.1	19.1	18.6	6.1	6.1	6.4
수입액(조엔)		82.7	20.7	22.5	19.4	19.0	6.3	6.2	6.5
무역수지(조엔)		-1.2	-0.6	-1.3	-0.3	-0.4	-0.1	-0.1	-0.1
경상수지(조엔)		19.0	5.6	2.6	4.5	-	2.0	2.2	-
해외직접투자(조엔)*		64.2	13.7	15.0	11.9	-	6.4	4.4	-
환율	달러	110.4	111.5	112.9	109.9	107.3	108.2	106.3	107.4
	원화(100엔)	996	1,007	999	1,062	1,113	1,086	1,137	1,116
금리(10년물,%)		0.071	0.098	0.076	-0.091	-0.24	-0.23	-0.28	-0.22
주가(닛케이, 엔)		22,310	22,654	65,691	21,414	21,270	21,594	20,630	21,585

주: p)는 개정치) \*실행액 기준, 자료: 일본 내각부, 재무성, 총무성, 후생노동성,

## 4) 2019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자동차	8,689	-7.2	-20.0	9,868	-1.8	13.6	89,387	-0.2
2	반도체 등 전자부품	3,587	-2.7	6.1	3,660	4.0	2.0	29,096	-5.0
3	자동차부품	2,747	-13.6	-8.4	2,982	-14.7	8.6	26,795	-9.6
4	철강	2,600	-13.6	-5.0	2,640	-0.4	1.5	23,311	-8.8
5	원동기	2,080	-12.7	-9.6	2,204	-13.1	6.0	20,540	-5.4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5) 2019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출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미국	11,904	-4.4	-12.2	11,874	-7.9	-0.3	115,450	2.9
2	중국	12,001	-12.1	-2.3	11,771	-6.7	-2.0	106,361	-8.6
3	ASEAN	9,341	-9.9	-4.4	9,892	-6.9	5.9	86,192	-7.6
4	EU	7,093	-1.3	-9.5	7,289	-0.4	2.8	67,698	-0.9
5	한국	4,226	-9.4	-3.1	4,028	-15.9	-4.7	38,704	-11.0
6	대만	3,640	-8.5	0.3	4,008	0.8	10.1	33,669	-3.2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6) 2019년 9월 일본의 주요 품목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품목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원유	6,733	-25.0	-2.0	6,064	-16.1	-10.0	59,769	-6.6
2	액화천연가스	3,421	-23.3	-5.8	3,410	-11.7	-0.3	33,268	-3.2
3	의류·동부속품	3,201	-5.5	11.0	3,251	-4.7	1.6	24,008	-1.1
4	통신기	1,594	-19.4	-24.3	2,968	-2.3	86.2	20,783	0.7
5	의약품	2,510	10.9	-8.3	2,851	44.2	13.6	23,584	8.1
	석탄	2,049	-24.5	-13.8				17,549	

자료 : 일본 재무성

## 7) 2019년 9월 일본의 주요 지역·국가별 수입 (억 엔, %)

순위	국가	2019.8월			2019.9월			2019.1-9월	
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		금액	증가율
	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월비	전월비		전년 동기비
1	중국	14,168	-8.5	-12.3	16,181	-1.0	14.2	137,305	-0.7
2	ASEAN	9,263	-13.8	-12.2	9,598	3.3	3.6	87,987	-3.2
3	EU	7,881	-2.3	-7.5	8,562	13.2	8.6	72,829	1.9
4	미국	7,184	-9.2	-7.4	6,233	-11.6	-13.3	64,705	-0.8
5	호주	4,228	-14.3	-7.7	4,163	-3.3	-1.5	37,856	1.7
7	한국	2,403	-10.3	-12.8	2,513	-8.9	4.6	23,901	-8.0

자료 : 일본 재무성